

## 아가서를 주제로 한 네 편의 축사

### 1. 혼인식의 사랑 노래

#### 첫째 가락 - 노래 중의 노래

옛 시인처럼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혼인식의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시 45:1). ‘노래 중의 노래’, 곧 아가서의 말로써 첫째 가락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印)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6)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아가서 8:6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신을 인(印)과 도장같이 그의 마음에 두고 팔에 두라고 합니다. 도장으로 소유를 확인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또한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팔로 보호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강렬한 사랑을 죽음, 음부, 불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는 모두 대상을 붙잡으면 삼켜 버리고, 상대가 거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사랑은 너무 강렬하여서 큰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 불의 기세를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불로 표현된 사랑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단 위의 제물뿐 아니라 주위에 판 도랑의 물도 모두 활아서 없앤 것처럼, 여호와에게서 나온 사랑은 큰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불은 태울 것이 없으면 기세를 잃고 꺼져 가고, 사람의 정열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상대의 관심을 자극할 만한 것이 없어지면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아가서 8:6에서는 ‘여호와와 불’로 사랑을 표현하였는데, 8:5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여호와와 동산’의 배경에서 묘사합니다.

너를 인하여 네 어머니가 신고(辛苦)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 8:5)

지금까지는 사랑을 자극하지 말고 일깨우지 말라고 하였는데(아 2:7; 3:5; 8:4), 노래의 마지막 장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깨웁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우는데, 그곳은 남자의 어머니가 남자를 낳은 곳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은 사과나무는 ‘어머니의 방’과 비슷한 의미이고, 말하자면 부부의 야외 침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은 바로 에덴동산의 정경입니다. ‘여호와와 동산’에서 그들은 사랑을 일깨우고,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과 같은 정열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지만, 아가서에서는 여인을 동산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잠근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 4:11-12)

잠근 동산인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가서에서는 매우 아름답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머리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아 4:9-15), 때로는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아 7:1-9). 마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말한 창세기 2:25의 주석처럼, 동산의 배경에서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동산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이들은 왕궁의 사랑을 비웁니다. 솔로몬의 헛된 영광을 비웁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성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과실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 8:11-12)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있는 포도원에서 은 일천을 얻고 포도원지기에게 은 이백을 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입니다. 일천 명의 여인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사랑을, 여호와와 불과 같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정략적인 혼인을 하였지만 사실은 자기의 포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의 목동은 자기의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집 내실(內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씀처럼(시 128:3),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동산에서 그는 사랑을 일깨우고 신방에서 나온 해처럼 힘 있게 살아갑니다(시 19:5).

‘노래 중의 노래’인 아가서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근거한 사랑을 비웃습니다. 솔로몬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가서에는 밝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장에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에덴동산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노래 중의 노래를 부릅니다.

### 둘째 기락 - 두 혼인식 사이의 노래

사도 요한은 짧고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데,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그분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세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분이 쓴 글은 혼인

식으로 시작하여서 혼인식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주님의 처음 표적으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노래합니다. 사도 요한은 첫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표시하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알려 줍니다. 따라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사랑도 막연하고 감정적인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두 혼인식 사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혼인식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매우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어린양이 인을 떼었을 때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계 5:1-7; 6:1).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신원(伸冤)의 기도를 올렸습니다(계 6:10). 그렇지만 신원의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동시에 어린양이 가르쳐 주신 찬송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여서 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일을 기록하는데, 14장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린양과 함께 시온에 서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능히 배울 수 없는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계 14:4). 그들의 노래는 이 땅의 노래가 아니라 ‘천상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어린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그 사람들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날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는 말로 시작하는 하늘의 노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계 19:6-8).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좋아도 신절(信節)을 잃은 사람은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부를 수 없고 마지막 혼인 잔치에서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신 주님께서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눈물 글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도 천상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도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의 천사들과 만물과 함께 부를 것입니다.

### 셋째 기락 - 이중창을 기대하면서

두 분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신랑은 바흐의 음악을 전공하신 성악가라고 들었고, 신부는 김홍전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오라토리오 「루디아」에 나오는 여성 삼중창의 한 부분을 맡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혼인의 서약을 하신 두 분이 어린양께서 가르쳐 준 그 노래를 함께 부르시기를 기대합니다.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예텐이 회복되는 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부를 영광스러운 찬송을 크게 부르십시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큰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노래를 잘 부를 재주가 없는 이 사람은 ‘노래 중의 노래’에 대하여서 ‘이야기’만 하였지만, 진심으로 두 분이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르기’를 기원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일깨운 사랑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와 함께 삼중창과 사중창과 복사중창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더 나아가서 합창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새로운 이중창을 기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온 교우와 함께 두 분의 혼인을 축하합니다.

## 2. 엄위한 아내를 얻은 신랑을 축하함

00 선생님,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큰 키던가요? 아가서에 여인의 키에 대하여 묘사한 구절도 나옵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7:6-8)

00 선생님, 그 다음에 00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마 ‘눈’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면 아가서에서 묘사한 것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에 ‘눈’에 대한 묘사가 일곱 번 나오는데 다섯 번은 신부에게 두 번은 신랑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특히 눈이 이름답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의 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4:9)

사랑하는 여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 남자는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을 이러한 말로도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15. 참조. 4:1)

신부가 어여쁘고 어여빠서 입을 다물 수 없는데, 신부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비둘기처럼 맑은 눈입니다. 여인의 맑은 눈을 알아보는 신랑도 맑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면서 여인은 남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5:12)

눈은 몸의 등불인데, 두 사람 모두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습니다. 투명하고 맑고 깊은 영혼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가서를 더 읽어 가면 눈을 호수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디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7:4)

여기에서는 목과 코를 각각 망대로 비유하고 눈은 그 곁의 못으로 비유합니다. 코는 레바논의 망대처럼 우뚝 솟았고 목은 상아 망대처럼 기품이 있는데, 그 사이에 헤스본의 성문 곁에 있는 호수가 등장합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혼의 수도로 높은 곳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상아 망대, 헤스본의 성문, 레바논의 망대와 같은 이미지는 합하여 하나의 풍경을 제시합니다. 산성 곁에 호수가 있고 그 주위에 망대가 있는 모습입니다. 레바논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서 이룬 맑고 깊은 산정(山頂) 호수입니다.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제시됩니다.

엄위가 있는 아름다움, 그것은 남자가 노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6:4-5)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디르사나 예루살렘은 산성이고 조밀하게 건설된 도시인데,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인이 무엇을 행하는 것은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여인에게는 그러한 엄위가 있습니다. 그 눈은 비둘기처럼 맑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호수와 같이 깊지만, 동시에 어떤 것의 본질을 꿰어 보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눈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신부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눈을 돌리라고 하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눈을 돌리겠습니까? 그 여인이 눈을 돌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혹시 신부가 눈을 돌이켜서 저를 보는 시선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신부가 눈을 돌리니까 잘 정돈된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신랑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떼  
 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을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6:6-7)

사랑하는 남자 역시 젖으로 씻은 듯한 맑은 눈을 가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돌리라고 하니 아주 경쾌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처럼 머리털이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치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인의 치아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떼처럼 하얗고 쌍태를 낳은 양처럼 위아래가 고릅니다. 새침때기라면 입을 다물고 있기에 하얀 이를 볼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치아뿐 아니라 석류 한 쪽처럼 붉은 뺨을 말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 서로 머리카락을 출렁이며 경쾌하게 걷고 크게 웃고 서로를 향한 마음 때문에 뺨이 홍조를 띠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완전히 취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찬사가 멈출 줄 모름

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6:9)

오늘 신부도 외동딸인데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뿐’인 사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풍족한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풍족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왕후와 비빈도 부러워하면서 칭찬합니다. 궁중에 있는 그들이 물질적인 호화로우심을 누리겠지만 한 여인으로서 한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복되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귀중하다’는 말은 10절의 ‘(해같이) 맑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여인은 맑게 형성되었고,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1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6:10)

이제 여인이 해와 달과 같이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해와 달처럼 신성하고 고귀하고 엄위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맑은 여인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습니다. 깃발을 든 군대처럼 엄위한 여인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모두 맑은 눈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바르게 볼 것을 보면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면 그 사람의 눈은 볼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온 몸이 어둡게 됩니다(마 6:22-24). 아가서의 두 주인공은 솔로몬의 영화의 헛됨도 바르게 파악하였고, 솔로몬의

영화와 구별되는 신성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분은 독립개신교회의 회원으로서 혼인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방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혼인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독립한 분들이 혼인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것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구약 정독 시간에는 아가서도 읽었습니다. 아가서를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느냐고 하였더니, 질문할 것은 없고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가서를 공부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였으니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가서를 들어서 두 분의 혼인을 축하하였으니 저는 그만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빨리 신혼여행을 떠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3.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읽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에 신부의 친구가 되는 강변교회 처녀와 성은교회 총각이 이 장소에서 혼인하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성은교회에서는 아가서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에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부분도 나옵니다. 아가서는 첫 구절부터 입 맞추고 침실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쁨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1:2-4)

숨을 죽이고 더 읽어 내려가면 이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등글어서  
 공교한 장식의 만든 구슬찌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7:1-3)

아가서는 문자 그대로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특히 아가서에 대한 풍유적인 해석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유대인들도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이라고 해석하였고, 고대 교회에서도 그 풍유적인 해석을 받아들여서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1:2), 검은 피부는 죄이고(1:5), 두 입술은 율법과 복음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5:1). 어떤 사람은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몰약 주머니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1:13; 4:5). 입술과 입맞춤과 유방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가서를 풍유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는 구절들은 아가서 이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네 가지 점에서 풍유적 해석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풍유적 해석은 해석자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상상력이 기발하기는 하

지만 본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풍유적 해석은 그 기원과 철학적 근거가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유적 해석은 그리스 신화나 영웅담에서 신들의 비도덕적 행위나 잔인한 행위를 부드럽게 만들고 윤리적이거나 철학적 교훈을 이끌어 내려고 기원전 6세기부터 사용한 해석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신랑은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풍유적 해석의 철학적 근거는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의 이원론입니다. 영혼과 육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는 전제에서부터 아가서의 사랑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교적인 해석법에 근거한 풍유적 해석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아가서에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가득한데, 이것을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의 관계로 해석하면 새로운 문제를 낳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입맞춤이나 육체적 접촉을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의 관계에 적용하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곳 캄편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교수, 하인리히 오만(H. Ohmann)은 풍유적 해석이 경건을 가장하였지만 사실은 가장 '신성 모독적인 해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혼인의 관계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행위로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신다는 묘사로 끝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대한 풍유적인 해석은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풍유적으로 이해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풍유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의 노래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그러한 데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교회 안에 두시고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신부와는 5분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기가 그렇고, 신랑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내가 원수처럼 밟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할 말이 없지만, 방금 혼인 서약을 한 분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길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이미 자명하게 된 것을 물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연구 휴가를 마치는 날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아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내 사랑'에 대하여서 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부족이 있으면 부족이 있는 그 정도에서 사랑하고, 넉넉함이 있으면 그 정도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분의 혼인을 축하하면서 이 글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풍유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흡족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정도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분이 주님을 아는 데에서 계속 자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사실은 24년하고 42일 전에 당산동 예배당에서 제가 받았던 축하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혼인을 주례하신 00 목사님께서 오랜 교제 끝에 어렵게 혼인하던 이 사람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라는 말로 축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가정에서 태어난 큰아이 000와 신랑 00 선생님이 2년 간 한집에서 살았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가서의 표현을 빌어서 같은 말로 혼인을 축하합니다.

신랑 00 선생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신부 00 선생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샘물처럼 신선한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십시오.

두 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장성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이 새 가정에 주실 언약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른 아이들도 넉넉히 감쌀 정도로 장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축하의 글을 맺습니다.

## 4. 두 혼인식 사이에서

오늘 혼인 예식사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9:6-9인데, 이 구절은 신랑과 신부가 정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혼인식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하는 데에 사용한 혼인예식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택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 로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의 처음 혼인과 마지막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이 혼인도 그 두 혼인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한 몸이 된 신랑과 신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혼인이 ‘두 혼인식 사이’ 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혼인식을 중심으로 우리의 혼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혼인의 주례자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처음 혼인을 제정하신 분이 마지막 날의 혼인도 준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혼인 잔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서 이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처음 혼인식도, 그리고 마지막 혼인식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혼인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혼인에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두 혼인식 사이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둘째, 이 혼인식의 신랑은 어린양입니다. 마지막의 혼인식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 입니다. 이것은 죽임당하신 어린양이 주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어린양은 끝까지 잠잠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죽음의 고통을 다 겪어지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우리의 신랑인데, 그분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19장 13-16절을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은 죄와 사망을 폐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죄인을 설복시키는 강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자기 신부에게는 어린양으로 부드럽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하십니다. 혼인하면 가장 좋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혼인 전에는 신랑이 신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 만날 날을 고대하였는데, 이제 혼인한 두 사람에게는 그러한 이별의 아쉬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껏 사랑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도 달도 필요 없을 그 나라에서 주님의 환한 얼굴로 만족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혼인식의 신부는 성도입니다. 신부는 신랑인 여호와와의 어린양이 마련해 준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어린양의 보혈로 정결케 한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주시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옷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라고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옳고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누추한 옷을 다 벗어 버리고 살 것입니다.

오늘 혼인을 위하여 혼인 예식문을 공부하였는데, 헤어지면서 예비 신부가 “목사님 그 날은 제가 너무 예뻐서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서 알아보기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신부 복장을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어서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혼인 서약을 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 혼인식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두 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초청은 오늘 혼인 서약을 한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혼인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그 영원한 혼인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백마를 타신 우리의 신랑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 초청에 응합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부름을 받은 두 분은 어린양의 신부로서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역사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혼인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 혼인식을 가리키고 그것을 지향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혼인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지금 거행하고 있는 혼인식이 지향하는 그 영원한 혼인식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서로에게만 향하지 않고, 함께 동일한 지향점을 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면 사랑보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지만, 함께 그 완전한 혼인식을 바라보면 두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분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같이 가시기를 권합니다.